

##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

의안 번호	47
----------	----

제출년월일 : 2002. 12. 12.

발 의 자 : 방종영 의원  
외 3인

### 1. 제안이유

- 미군장갑차에 의해 고 신호순, 심미선양이 무참히 참사된 이후 우리들은 한결같이 “진상규명,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처벌, 사고 부대와 훈련장 폐쇄, 부시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우리들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는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SOFA협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

### 2. 주요채택내용

- 살인자가 살인자를 재판한 무죄판결은 원천무효이다.  
한국법정에서 살인 미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두 여중생 살인만행, 오만한 무죄판결 책임지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미군 당국은 재판권을 이양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

붙임 :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 1부. 끝.

##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에 대한 우리의 결의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고 신호순, 심미선양이 무참히 참사된 이후 한국민은 한결같이 “진상규명,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처벌, 사고부대와 훈련장 폐쇄, 미국대통령 공개사과”를 요구 했으며, 범국민 서명운동 1년만에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전국 경향각지에서 어린학생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인 분노와 규탄, 투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각지 도심지에는 연일 촛불시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미군당국과 부시미대통령은 한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급기야는 11월 18일, 21일 관제병인 페르난도 니노, 운전병인 마크 위커, 두 살인미군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두 여중생을 두 번 죽이는 살인만행이며,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은 주권유린행위이다.

이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사된 고 신호순, 심미선양 살인사건에 대하여 무죄선고는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살인자가 살인자를 재판한 무죄판결은 원천무효이다. 한국법정에서 살인 미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두 여중생 살인만행, 오만한 무죄판결 책임지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군 당국은 재판권을 이양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일동

##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

- 方鍾永議員 外 3人 發議 -

##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방 종 영		
표 명 찬		
정 종 태		
이 국 선	